

아프리카대륙 흑인문학의 '현대적 고전'

올레 소잉카 지음 「아케의 추억」

「아케의 추억」은 나이지리아의 작가, 올레 소잉카의 자전적 작품으로, 2차대전이 끝날 무렵 '아케'라는 작은 부족마을에서의 삶을 소년의 시각에서 조망하고 있다.

유난히 호기심이 많은 어린 올레는 자기 외 부세계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의 본질적 의미들을 밝히기 위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다. 그러한 과정에서 그의 인식범위는 가정, 마을, 공동체, 학교, 그리고 흑인세계로 넓혀진다.

올레의 호기심에 대한 어머니와 와일드 크리스천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그는 책과 공상의 세계에 몰두하여 시간을 보내고, 점차 그의 관심은 마을 밖의 세계를 향해 열린다. 네살이 되어 학교에 다닐 무렵엔, 악단 행렬을 따라 가다가 처음으로 백인을 만나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바깥 세상을 보여주려 마을에 온 행상인들의 모습에서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얻는다. 즐거운 표정 뒤에 숨어 있는 그들의 가난함과 초라함을 보았기 때문이다. 비로소 그 어린아이 올레는 행복과 불행이라는 삶의 양면적인 모습을 이해하게 된 것이다.

또한 동생 플라세이드의 죽음으로 인해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을 경험하며, 할아버지에게 받은 발목절개 수술(성인식)을 통해 어려움을 이기는 인내력을 배우게 된다. 이 시기는 그가 순진무구한 아이의 세계에서 점차 벗어나는 단계였다.

열한살이 되어 올레는 이바단의 국립대학으로 떠나야 했다. 그때 삼촌 다오두와 베에레에게서 히로시마 원폭투하 사건과 이디오피아가 무솔리니에게 넘어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이런 이야기 속에서 올레는 백인들의 인종차별주의에 관한 암시를 얻는다. 그리고 자신이 평화로운 마을공동체를 떠나 그러한 현실 속에 뛰어들려 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올레는 지금부터 자신이 헤쳐나가야 할 세계에 대한 버거운 무게를 느끼면서, 정신의 단련을 결심한다.

이 책은 세상부터 열한살까지의 웅골찬 흑인소년, 올레의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의 올레는, 올레 소잉카 단 한 사람만이 아니라 장차 아프리카를 이끌어 갈 수많은 아이들의 이름이라고 본다.

그런데 올레에 대한 백인의 후원은 나딘 고디머의 단편 「발표되지 않은 이야기」를 생각해 나게 한다. 한 진보주의자 백인 여성이 길에서 발견한 소년에게 학교교육을 시키지만, 서구 중심적 교육은 부족사회의 전통에 길들여진

그 소년에게 혼돈을 주고, 결국은 자아붕괴에 이르게 한다는 내용이다. 분명 흑인에 대한 백인의 교육은 다오두 삼촌의 포웰 교장에 대한 평가에서 나타나듯이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 올레가 백인을 알비노 환자에서 세금징수원, 처어칠, 히틀러, 그리고 무솔리니로까지 통찰해 내었듯이, 그러한 문제들 역시 냉정하게 간파해 낼 수 있기를 바란다.

그들 세계의 많은 부분이 서구화되어 있고, 기독교라는 익숙한 종교를 갖고 있어서인지 우리의 생활과 비슷한 부분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많은 고유명사의 쓰임과 서구의 형식적 모방속에 여전히 내재되어 있는 토속문화의 전통 때문이라 생각된다. 아버지를 '교장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아, 언어 자체 뿐 아니라 사고 방법 또한 다른 듯하다.

아직 우리에게 아프리카 흑인들의 글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지 않다.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책들은 그들을 타자로서만 다루고 있다.

지난 4일 만델라가 이끄는 민족회의가 총선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이어 10일에는 만델라가 대통령으로 취임했으므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처음으로 흑인 대통령을 맞이한 것이다. 과거의 억압과 소외를 당당하게 극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에 대한 좀더 깊은 관심과 이해가 필요한 이때, 직접 그들의 진솔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것은 뜻깊은 일일 것이다.

김영진

강원도 춘천시 요선동 8-43 10동 3번

롤랑 바르트 지음 「사랑의 단상」

“단상은 뛰어나게 아름답거나 너무도 시시하다.” 나의 이 짧은 말은 참으로 단순하고 당연한 논리의 진술이라 또한 시시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시한 진술을 선택한 이유는 아름다움과 시시함이라는 극단적인 가치의 골짜기 안에 무수히 버려져 있을 상대적인 가치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싶어서이다.

극단의 가치는, 다시 한 번, 아름답거나 시시하다. 그러므로 그것은 폭력적이고 확실히이며 아름다움과 시시함의 외피를 뒤집어 쓴 거짓말이기 쉽다. 그 극단의 사이에서 옹크리고 있는 여러 진술들은 그 극단의 가치가 받는

화려한 조명에 밀려 그림자로 서성이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은, 어쩌면, 그곳에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느 젊은 평론가의 말을 빌리자면, “진실은 회색 안에 존재하며 진정성은 경계선에 자리잡고 있다.” 단상은 그 외형적 특성상 비좁은 공간안에 풍요한 언어를 밀어넣고자 한다. 그러므로 그 언어는 공간 안에 침투하려고 버둥거리어도, 또는 반대로 말초적 신경만을 건드리는 감성적이고 상투적인 문구로 무장한 함량미달의 어설픈 것이어서도 안된다. 그것이 좁은 공간과 사이 좋게 타협하면서 약간 비좁은 듯이, 때로는 넉넉한 듯이 자리잡을 때 단상은 비로소 극단의 가치에서 탈피해 하나의 힘있고 건강한 글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꽤나 오랜 시간에 걸쳐 육중한 글의 무게를 버거워하며 읽었던 롤랑 바르트의 「사랑의 단상」(문학과지성사)은 그러한 사이 좋게 타협을 모범적으로 보여준, 참으로 뛰어난 글이다. 흐느끼듯 감상적인 어조로(아마도 바르트 자신의 경험이라고 생각되는) 그리움과 기다림과 만남의 순간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글은 숨결처럼 나긋나긋하지만, 숨어있는 의미를 추출해낼 때 그의 문장은 거침없이 분석적이다. 그 둘 사이의 행복하고 치열한 긴장이 이 글을 지탱해주는 축일 것이다.

사랑을 하고 실연을 맞은 사람들은 아마 이 글을 읽으며 무수히 감탄하고 아쉬워하리라. 내가 그토록 찾아헤맸던 말들, 잡힐 듯 잡힐 듯 며칠 밤을 앓아가면서 떠올렸던 그 순결한 언어들이 이 책에서, 참으로 짧은 하나의 문장 안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엮여 마구 판매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을 덮은 지금, 나는 다시 한번 읽어야 한다는 느낌에 사로잡힌다. 내 가슴을 처음으로 떨리게 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이 책을 다시 읽을 것이다. 그리하여 아름다움과 시시함 사이에 있는 어두운 사랑을 만날 것이다.

김 범

고양시 마두동 755 백마마을 삼성APT 107동 1501호

김영현 지음 「뜻사랑」

90년대 들어 신세대 작가라 흔히 일컬어지는 몇몇 작가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작가들이 현실에 짓눌려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그

것은 90년대라는 혼란스런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작가들이 담당해 왔던 몫과도 무관할 성 싶지 않다. 근대적인 의미의 작가가 생겨난 이후, 그들은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던가. 때론 무지몽매한 대중을 계몽하기도 했고, 때론 민주화에 앞장 서기도 했다.

하지만 많은 것이 변화된 지금 작가들 스스로 그런 생각은 버려야 할 때로 본다. 정말 “좋은 시절”은 가 버린 것이다.

김영현의 「뜻사랑」(실천문학사)은 그런 부채의식에서 많이 벗어난 소설이다. 이전의 김영현이 썼던 작품들과는 성격상 차별성을 가지는 이 소설은 한마디로 80년대 후반 젊은이들의 자화상을 그저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을 뿐인 것이다.

30대인 영훈과 그의 이복동생이자 운동권 대학생인 영민, 그리고 그들의 사촌동생인 재수생 경식이 87년을 겪는 모습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이 소설은 작가적 부채감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있는가? 이 등장인물 세 명의 운명을 일정 부분 규정짓는 87년 6월 항쟁에 대한 형상화를 보자. 만약 작가가 이제 와서 87년 6월 항쟁을 평가해 보고자 했다면, 영민을 중심에 두고 써 나갔으리란 것은 뻔한 일이다. 그런데 그것은 철저히 재수생 경식의 시각을 통해 그려내고 있다. 그저 구경꾼일 뿐인 경식을 통해 독자들 또한 그 일을 “구경할 뿐이다.” 하지만, 그 시절을 겪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가슴 뛰는 ‘그리움’을 맛보았으리라. 또한 이런 생각도 할 것이다. “정말 그런 일이 있긴 있었던 것일까.”

겉으로 아무런 이야기도 해주는 것 같이 않은 이 소설은 독자의 몫을 남겨둠으로써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해준다. 그것이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미덕이 아닌가 싶다. 작가가 모든 것을 제시해 주고 독자는 그저 쫓아가기만 하는, 수동적 책임기에서 능동적 책임기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도 이 소설의 또 하나의 장점일 것이다.

강영훈

서울시 구로구 개봉1동 90-42

이청준 지음 「서편제」

이 청준의 글은 읽는 이의 심기를 다소 불편하게 한다. 문체의 화려함 뿐만 아니라 주제

또한 매우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인 듯 하면서 항상 무거운 마음을 감출 수 없는 것은 이야기속에 전제된 "남도사람들"의 비극적인 삶때문만은 아니리라. 이청준의 숨겨 놓은 이야기를 읽으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서편제」는 남도사람의 서글픈 이야기다. 그것도 독특한 한국인의 정서를 보여주는 한 소리꾼의 애달픈 이야기이다. 연작 형식을 띤 이 소설은 언뜻 보기엔 전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한 예술가의 기구한 운명을 다양한 시각으로 보고 있다. 이 다양한 시각은 한 인간의 극렬한 삶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처럼 느껴진다.

「서편제」에 흐르는 무거운 소설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민족의 그 무엇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청준의 이야기는 줄곧 한을 다룬다. 그는 한 예술가의 구체적 삶을 통해 한국인의 독특한 경험인 '恨'의 의미와 형성과정, 그리고 그 승화과정을 사실화하고 있다. 즉 그는 미움이 어떻게 한으로 승화하고, 예술은 우리 삶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독자로서 하여금 반추하게 한다.

이청준의 글에 나타난 한의 독특한 특성은 부정적 세계관으로부터 긍정적 세계관으로 바뀌어 가는 심리적 기제에서 나타난다. 즉, 복수심에 불타던 마음이 "용서할 수 있는" 삶의 자세로 전환될 수 있는 힘을 '한'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이 힘을 "예술"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예술로 승화된 남도사람들의 '소리'는 이청준에게 '한'의 소리다. 한 소리꾼의 비극적 운명은 그 원인을 외화시키려는 경향을 내포한다. 자신의 비극적 삶의 원인을 소리꾼인 아버지에게 돌릴때 그의 심리적 상태는 복수심밖에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복수심이 자신의 운명으로 내화될 때, 자신의 비극적 운명은 타인의 삶을 허용할 줄 아는 사랑의 공간이다. 이러한 전환은 '소리'에 대한 강한 회귀로 대변된다. 소리꾼의 끈끈한 혈통을 이어받은 이복누이동생의 소리는 바로 아버지에게 대한 복수심이 승화되고 응결된 '한'의 소리다. 그래서 이 청준은 스스로없이 "한은 삶과 같다"라고 말하게 된다.

부정적 삶의 태도가 긍정적 삶의 태도로 바뀌는 이 놀라운 심리적 기제(이 청준은 분명 예술의 힘을 강조한 듯 하다)는 이 청준의 글속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기반이다.

나영옥

동대문구 청량2동 580번지 2통 7번

김지하 지음 「웅치격」

「雍齒格」이란, "건축가가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말이다. 이 말은 「웅치격」의 첫장을 여는 순간 "세상이 뒤숭숭하다..."라는 글과 함께 수록돼 있다.

요즘 동양사상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다. 우연한 기회에 증산도에 관한 책을 가까이 했고, 같은 시기에 김지하를 통해서 증산도가 동학사상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이 책 「웅치격」은 동학사상에 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서점에 나갔다가 건져올린 산문집이다.

「웅치격」은 한마디로,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편안한 세계로 인도해주는 책이다. 그리고 수운 최제우의 사상과 그것을 뿌리로 해서 생명주의를 말하는 김지하의 자연스런 신념이 돋보이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여기서 저자는 "홍익인간"이나 "인내천" 사상은 한국인의 정체성 속에서 알게 모르게 축적돼 온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내게 있어 역사책의 한면을 메꾸고 있는 동학사상이 농민운동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동학혁명 100주년을 맞아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우리 삶에 내재된 사상들을 꺼내어 보는데 백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렸음을 실감한다.

우리들의 정서에 녹아든 삶의 모습은 진정 어떤 모습일까. 김지하는 본문에서 "탁월한 개인주의, 철저한 이기주의는 오히려 속물적 이기주의를 넘어서서 개인의 존재 내면에 있는 이 신비한 전체를, 그리고 외계와의 총체적 연관을 자기 나름으로 독특하게 개성화하는 것을 뜻한다"고 했다. 현재 우리시대의 젊은 이를 X세대, 혹은 신인류의 출현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이 이 땅에서 일궈낸 사상을 얼마만큼 알고있는 지는 의문이다. 한국인의 정체성을 제대로 깨우치고 그 속에 면면히 흐르고 있는 사상을 간파한다면 세대간의 갈등은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최창례

충남 논산군 연무읍 안심리 5번지

출판사 업무 전산화 프로그램

BESTSELLER

많은 출판사 업무를 혼자서 묵묵히 처리하는 숨은 일꾼이 있습니다.

사장님께서서는 이런 일꾼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이제는 투자하십시오!

BESTSELLER는 적은 투자로

두 세 사람 몫을 거뜬히 하는 프로

그림입니다. 출판사 업무 전산화

이제 '정승'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출판사 전산 개발 경력을

토대로 꼭 필요한 업무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전화주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 이런 일들을 합니다.....

도서관리, 서점관리, 회원관리, 저자관리, 입고, 매출, 수금, 반품, 증정 및 폐기, 신간배분, 도서재고, 세금 계산서, DM 발송, 현금출납, 도서별·서점별 매출현황, 서점별·날짜별 수금현황, 도서별·서점별 반품현황, 입고 현황, 도서별증정·폐기현황, 도서별·서점별 매출순위, 도서 수불장, 서점별 미수금현황·순위, 도서별 판매현황, 서점별 외상 매출원장 등등.

□ 이런 일들도 합니다.....

P C 판 매 안 내		
	80486DX2-50	80386DX40
H D D	270MB	
F D D	5.25", 3.5"	
모 니 터	삼성 Syncmaster (Green)	
R A M	4MB	
V G A	한글도깨비 V	
가 격	1,600,000	1,150,000

*신용카드 할부가능

청송소프트웨어

서울시 구로구 독산1동 289-6
TEL : 859 - 7383~4 FAX : 863 - 2852